

"3퇴"와 평안

제 99 기

《9 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2 년 11 월 8 일까지 이미 1 억 2 천 7 백 7 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가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였다.



그림 1: 오바마(奥巴马 오른쪽) 가 파룬궁수련생 고원(高媛) 박사(왼쪽)의 편지를 받고 있다



그림 2: 파룬궁수련생 장소(张素) (왼쪽 두 번째) 와 하페부부, 시마·화이터 (오른쪽 첫 번째) 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림 3: 유럽의 여러 정치 요인들은 중공 정부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즉시 정지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각국 정치요인들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 적출에 관심을 모으고 규탄하였다

2012 년 2 월 중공 전 중경시 위서기 박희래의 심복이자 전 중경시 공안국장인 왕립군이 미국 주재 성도령사관에 도주하여 비호를 청구했다. 왕립군이 미국 정부에 바친 중공의 여러 부류의 기밀문건중에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증거가 포괄되어 있다. 요즘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 사건이 전 세계에서 대량으로 폭로됨에 따라 각계의 커다란 진동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각국 정치요인들은 사람과 신이 모두 분노하는 이런 죄행에 대하여 한결같이 분개하고 규탄했다.

미국 106명 의원들은 중공이 생체장기적출 죄행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2 년 10 월 3 일 106 명 미국 국회의원들은 연명으로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클린턴에게 편지를 보내어 미국 국무원에서 장악하고 있는 중공이 파룬궁학원의 생체장기적출 죄행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2 년 10 월 5 일 오바마총통은 버지니아주 조지·매이슨 대학의 선거인과 만났을 때 친히 파룬궁

수련생 고원박사가 주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는 총통께서 국무원에 왕립군이 미령사관에 제공한 죄증에 대한 공개를 독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림 1) .

캐나다 총리는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 악행에 몹시 놀랐다

2012 년 8 월 6 일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는 밴쿠버에서 참의원 여름집회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생 장소(张素)는 스티븐 하퍼총리에게 캐나다 정부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그와 캐나다 정부에서 중국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가 생체적출되고 있는 사실에 관심을 돌릴 것을 바랐다. 스티븐 하퍼는 이에 놀라워하면서 비서더러 두명의 독립조사원이 쓴 전문작 《피비린 장기적출》(그림 2) 책을 받게 했다.

유럽 정치요인들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 죄행을 정지할 것을 호소했다.

2012 년 10 월 26 일 벨기에(比利时) 부뤼셀에서 유럽 십여개 나라에서 온 파룬궁수련생들은 대형 집회를 가지고 파룬궁은 “쩐.싼.런”을 원칙으로 사람더러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도록 하나 도리어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은 심지어 잔인하게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여 리익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의 회 부주석을 포함한 유럽 여러 정치요인들은 친히 현장에 참석하거나 지지편지를 보내어 중공이 즉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정지하라고 호소했다. (그림 3)

연합국 인권 리사회주석인 라 자리녀사가 주체한 9월 18일 국제 인권 토론회의에서 전 세계 대기원 총편집 곽군(郭君)녀사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아일랜드 참의원 데이비드·노리스(그림 3의 윗줄 중간)는 연합국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개입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중공정부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행위를 정지하고 아울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호소한다. 나는 또 연합국 인권위원회의 나위·필레이녀사에게 중국에 독립 조사단을 파견하여 이런 비열하고 불도덕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호소한다.”◇

소중한 중국동포 여러분 중공사교를 멀리하고 “3 퇴” 하여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

【명혜망】 중공은 줄곧 사고를 반대한다고 떠벌렸다. 중공의 몇십년의 역사와 현재에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중공의 사고본질을 똑똑히 보아낼 수 있다. 소중한 중국 동포들 중공 사고를 멀리하고 “3 퇴”(탈당.탈단.탈대) 하여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

◆ 중공이 정권을 훔친 초기의 “토지개혁”과 “반혁명진압” 운동에서 500 여만 중국 사람을 살해했다.

◆ 1951 년의 “3 반”, “5 반” 운동에서 32 만 3100 여명이 체포되고 280 여명이 자살하거나 실종됐다

◆ 1957 년의 “반 우파”는 55 만 여명의 지식분자를 우파로 만들고 수십만 명이 자유를 잃었고 수백만 가족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이로부터 그들은 관제 감독의 대상이 되어 비천한 백성으로 나떨어졌다.

◆ 1959 년부터 1961 년까지 중공은 대약진을 한 다면서 3 년 대기근을 인위로 조성하여 전국에서 3000~4000 여만명 사람의 비 정상적인 죽음을 초래하였다. 역대로 천부의 나라로 불리우던 사천성에서만 해도 몇백만 사람이 굶어 죽었다.

◆ 1966 년부터 1976 년까지 문화대혁명에서 1 억이 연루되었고 420 만 명이 심사를 받았고 13 만 5 천여명이 사형판결을 받았고 172 만 8 천여명이 비 정상으로 죽었고 23 만 7 천 여명이 무장투쟁으로 죽었고 703 만 여명이 불구자로 되고 71200 여개 가족이 완전히 회멸되었다. 문화혁명에서 비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773 만 여명이었고 화를 입은 자가 6 억 여명이 된다. 이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 1989 년 “6.4” 도살에서 중공은 천안문에서 탱크 기관총으로 맨 주먹인 학생을 깔아죽였다.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천안문, 동서 장안거리는 피바다로 되었으며 중공은 소방차로 천안문 광장을 씻었다고 하였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공이 소식에 대한 봉쇄로 오늘까지도 사망인수를 통계할 수 없다.

◆ 1999 년 7 월 20 일, “썩. 썩. 런”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받아 죽은 것은 이미 3000 여명이나 증식되었다. 몇십만 파룬궁수련생들이 판결받고 로교소에 보내지고 세뇌반에 보내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졌으며 심지어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여 고가로 외국사람과 돈 있는 중국사람에게 팔아 폭리를 얻었다.

◆ 중공이 정권을 훔친 후 2000 여만 소수민족 동포들이 살해당했다.

◆ 중공이 공포한 숫자로만 통계해도 짧디짧은



그림: 2002 년 6 월 귀주성 평당현 장포향에서 2 억 7 천년 되는 “장자석(藏字石)”을 발견했다. 천연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 망”이란 6 개의 커다란 글자는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는 하늘의 뜻을 알리고 있다. 위 그림은 “장자석”과 풍경구 문표이다.

몇 십년간 중공은 8000 여만 중국사람을 살해하였으며 중국인민에게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범했다.

중공사당의 죄는 가득하여 글로 다 쓸 수 없으며 두 차례 세계대전에 사망한 인수의 총합을 초월하였는데 그래 이것이 가장 큰 사고가 아니란 말인가?

소중한 중국 동포들이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중공 사고를 멀리하고 “3 퇴” 하여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

폴란드 민중들은 연합국에서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 폭행을 조사할 것을 호소

【명혜망】2012 년 10 월 12 일부터 23 일까지 폴란드 파룬궁수련생들은 바르샤바시 중심지역 지하철 광장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13 년의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였다. 특히는 중공이 생체 장기적출, 그리고 시체가 공판매로 폭리를 얻은 죄행을 폭로하면서 반 박해 서명 모집을 가졌다. 서명대 앞에는 항상 길게 줄이 어 있었으며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국에서 직권을 실행하여 하루 빨리 독립조사를 전개하여 반인류 사악한 폭행에 대해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림: 폴란드 각계 인사들 다투어 서명

중공 생체장기적출 내막 곧 밝혀질 듯

글 / 구 양 비

【명혜망】1999 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 북경으로 상방을 간 파룬궁수련생들은 항상 체포됐는데 중공의 련루정책을 따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수만명에 달하는 이런 파룬궁수련생들은 줄곧 행방불명이였다.

2000 년 이래, 중국 장기이식 시장은 심상치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맹렬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한갈래 국제장기이식 관광열조까지 형성됐다. 예전부터 모두 환자가 장기를 기다렸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장기가 사람을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거대한 장기 공급창고는 어디에서 왔는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장기적출 내막이 폭로되였다

2006 년 3 월, 대륙에서 온 내막을 아는 두 사람이 해외에서 중공이 대규모로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를 적출한다는 참혹한 내막을 폭로했다.

그리하여 위에서 보기에는 별로 상관없는 두가지 사건---실종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과 중국 장기이식량의 갑작스런 증가를 한데 연결하게 됐다. 사람들은 진작부터 의심스러워했다. 예전에는 몇 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장기이식이 지금 중국의 많은 병원 사이트에서는 1 주일 또는 2 주면 이식이 가능하고 심지어 실패하면 즉시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배후의 음밀한 비밀이 드디어 실마리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사람을 죽여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챙기는 이런 죄악이 너무나도 사악하여 전 세계가 미처 반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6 년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적 충격을 거친 후 끝내 '이 지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죄악'을 정시하기 시작했다.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이란 반 인류죄악이 세계의 초점으로 되였다.

2012 년 5 월 24 일, 미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2011 년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론 및 인권 단체에서 끊임없이 파룬궁수련생이 생체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는 사건을 보도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정부보고서에 이 문제를 정식 보고한 것이다.

2009 년 영문판 '피비린 생체장기적출'을 발행한 뒤를 이어 2012 년에 또 영문판 '국가 장기기관'이 출판됐는데 이 책에서는 4 대 주에서 온 여러 전 문학자들이 중국 장기이식에 관한 견해를 수록했다. 이 두 책이 얻어낸 결론은 수천수만의 파룬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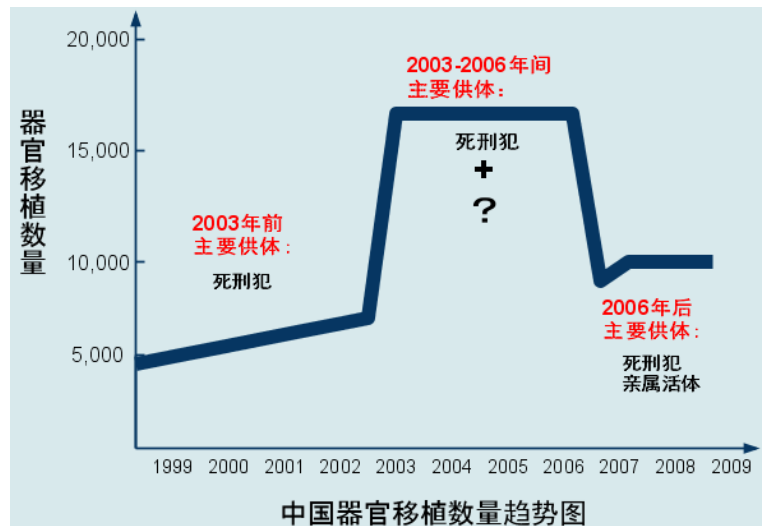


그림: 중국 장기이식 계통에서 제공한 수자에 근거하여 그려낸 중국 장기이식 수량 추세도.

수련생이 당국의 생체 장기적출의 수요로 인해 학살당한다는 것이다.

2012 년 9 월 12 일, 미국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중공이 종교와 반체제 인사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현상을 조사하고, 파룬궁 생체 장기적출에 관심을 보였다. 미국 하원의원 외교 사무위원회 사이트는 공청회 당시 여러 발언인들의 증언을 발표했다.

2012 년 9 월 17 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21 차 회의가 유엔 제네바 사무실에서 열렸다. '평화 집회의 자유' 국제 인권 연구토론회에서,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생체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건이 이 국제회의의 초점이 됐다. 18 일, 대기원시보 총 편집장 곽군(郭君) 녀사가 대회에서 발언해 현장에서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죄악을 폭로하고 조사할것을 요구했다. 국제교육발전기구는 유엔에서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긴급 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며, 많은 나라 대표들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중국에 진입해 조사하기를 희망했다.

2012 년 10 월 4 일, 미국 국회의원 106 명이 련명으로 미국 국무부가 이미 획득한 파룬궁수련생 장기적출 죄행에 관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련명 서신은 또 미국이 증거를 얻었다면 마땅히 이 같은 죄행을 제지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경 사건은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죄악에 련관된다

2012 년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바로 2 월 미국 령사관으로 도망친 왕립군 사건이다. 왕립군 사건은 곡개래더러 영국 사업가 해오덕을 모살한 리유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했고, 박희래더러 '당적과 공직박탈' 처분을 받게 했다. 대기원 등 해외 언론이 보도한 데 의하면 이 사건은 왕립군, 곡개래, 박희래가 '파룬궁수련 (제 4 면으로)

(3면의 계속) 자 생체 장기적출' 죄악에 말려들었음을 폭로했다. 왕립군은 금주(錦州)시 공안국에 '현장 심리 연구중심'을 세우고 장기이식 실험에 종사했으며 2년 남짓한 사이에 자신의 과학기술 성과를 '몇천 개 현장 집약의 결정'이라 자칭했다. 왕립군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장기를 구했는가? 공개래는 '대련 시체공장' 배후의 검은 손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체 가공공장'인 하겐스 대련 생물소화회사(生物塑化公司)와 홍봉(鴻峰) 생물과학기술회사는 모두 대련에 있다. 최초로 파룬궁 생체 장기적출이 폭로된 료녕성 심양시의 '소가툰(蘇家屯) 사건'은 바로 박희래가 료녕성 성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중공이 비록 왕립군, 박희래에게 죄를 정할 때 생체 장기적출을 회피했지만, 이 문제야말로 현재 중공 권력투쟁의 핵심이다. 강택민, 주영강, 박희래 등 한 무리 사람들 손에는 파룬궁수련생의 선혈이 가득 묻어 '피빔패 (血債幫)'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 박희래를 위에 앉히려고 적극 힘썼던 것이다

중국 '재정(財經)' 잡지는 2012년 9월 10일 '51

개의 신장을 불법 매매한 배후: 장기는 3 갑(三甲) 병원에서 씻었다'란 제목의 문장을 발표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신장을 팔아 생존을 위한 일이지만, 그중 폭로한 '사형수 장기 기부 문건' 위조, '친척간에 생체 장기를 기부한 문건' 위조 등 행위는 몇 년전 대규모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밝혀주는 실마리가 됐다. 중국인에게 장기를 기부하는 전통이 없다. 사형수 장기 출처도 제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안정된 것이며, 중국에서 그 몇 년간 갑자기 폭발한 장기 시장을 지탱하려면 반드시 새롭고 방대한 장기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 강택민 집단과 중공의 잔혹한 박해하에, 파룬궁 단체는 천지를 뒤엎을 듯이 날조 먹칠당하고 요물화당한 후 희생양으로 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미 정시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 많은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천상에 순응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강택민 무리와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한 죄악이 결국 만천하에 널리 알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성 선전부장이 탈당 후 주동적으로 생체적출 진상을 전했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생체 적출한 죄행이 국내외에서 광범히 전파되면서 이런 죄행을 들은 중국인들은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중공을 "마귀"라고 욕하면서 견결히 중공 이 사악한 조직에서 탈출하겠다고 요구했다!

성 선전부장이 탈당 후 주동적으로 생체적출 진상을 전했다

최근에 탈당복무센터의 한 자원봉사자는 이런 사실을 말했다: 그녀가 권고하여 탈당한 사람들 중에 성급 선전부장이 있었다. 처음 그에게 진상을 말해 줄 때 그는 이런 것들을 그는 전부 다 알고 있기에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다. 요사이 이 부장은 또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폭로한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생체적출한데 관한 사실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원래 생체장기적출에 대하여 똑똑히 알지 못하였는데 폭로된 내막을 본 그의 감수는 "이런 사실의 진감력은 너무나 크다" 면

서 그는 해외 매체에서 계속 심도 있게 보도하고 국내에서 즐기는 생체적출에 관한 것을 핸드폰 문자로 집중적으로 보내어 더욱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진상을 료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중경관리 및 "강패타격"경찰이 탈당

중경의 한 탈당자원봉사자 강녀사는 대기원 기자에게 표명하기를 많은 민중들은 모두 "박희래, 왕립군" 따위 같은 탐오부패 관원들이 중국 도처에 다 있다고 여기며 민중들은 보편적으로 중공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기에 달갑게 "3 퇴" (탈당, 탈단, 탈대) 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매우 많은 정부부문의 사업일군들도 "3 퇴"를 접수하고 있다. 강녀사는 말하기를 그녀의 사촌 오빠는 경찰이며 이전에 경상적으로 박희래, 왕립군의 "강패타격" 행동에 참여하였었다. 왕립군이 미국 영사관에 도주한 후 왕립군, 박희래의 검은 내막이 점차 폭로되자 사촌오빠의 관념도 변하기 시작했다.

"10.1"기간 그는 마침내 중공에서의 탈출결정을 내렸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은 박희래, 왕립군의 사악한 지령에 배합하여 중경의 일부기업과 회사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이로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감옥에 갇혔는지 모른다면서 그들은 산성인민들에게 미안하며 강패같은 중공을 끝까지 따라간다면 출로가 없다고 말했다.

웨이버에서 생체장기적출검색을 해제하자 대량의 "탈 D"인들이 나타났다

9월 28일 박희래가 '당적과 공직박탈'을 당한 후 신랑(新浪)과 등신웨이버(騰訊微博)에서 "생체적출", "피비린 생체적출" 등 민감한 단어들을 해제했다. 왕립군, 박희래 등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시체매매등에 관한 하늘을 놀래케 하는 죄악의 내막은 각계를 놀래웠으며 만중들로 하여금 중공의 추악한 면을 똑똑히 보고서 분분히 "나는 탈 D ("당"자를 줄인 병음) 하련다"고 표명했다. 요즘 탈 D 정보는 웨이버에서 대량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공에서의 탈출은 대세이자 민심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탈당단대방법(진명, 가명, 필명도유효): * 탈당전화: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탈당팩스: 001-702-248-0599

* 탈당전자우편: tuidang@epochtimes.com * 인터넷에 오르지 못하는 이는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이고 후에 인터넷에 오르면된다